

●● 진리말씀 따라 ‘사랑, 빛, 평화’ 전하는 신천지자원봉사단 ●●



“값없이 생명을 주는 하늘의 빛, 비와 공기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며 지역 사회의 어둡고 소외된 곳을 찾아 빛이 되고 평화를 전파하겠습니다.”

이들은 ‘사랑, 빛, 평화’ 의 정신을 바탕으로 보훈, 장애인, 공익, 문화 등 범사회적 분야에서부터 종교, 인종, 국경을 초월해 범세계적, 전 지구적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천지자원봉사단이다.

신천지자원봉사단은 국내외 67개 지부 20만 명의 봉사자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남북정상회담 성공 기원 ‘제1회 조국통일 평화 마라톤’ 개최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신천지자원봉사단 광주지부가 지난 7일 오전 10시, 광주역 일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성공 기원 ‘제1회 조국통일 평화 마라톤대회’ 를 개최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자원봉사단 광주지부는 “남북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강한 바람으로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마라톤 대회 행사장에는 선수단 2천명, 자원봉사자 7천명, 시민 3천명 총 1만2천명이 운집했다.

이날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댄스팀과 응원단의 공연에 맞춰 몸을 풀고 남북정상회담 성공 기원을 외치며 힘찬 레이스를 펼쳤다. 마라톤은 광주역 앞을 출발해 5km 코스로 진행됐다.

지재섭 신천지자원봉사단 광주·전남지부장은 “대한민국은 쓰라리고 아팠던 6.25 전쟁과 70년 전 일제 압박 속에서 고생하며 살아왔다” 면서 “쓰라림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아름답게 봉사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돕는 자가 되고, 지구촌이 행복하려면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로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되어야 한다” 라며 “앞으로도 좋은 만남으로 광주전남 모두가 하나되어 모든 지구촌이 아름다운 우리 국민성을 볼 수 있도록 계속 아름답게 봉사하며 살아갔으면 한다” 고 강조했다.

마라톤대회에서 1등을 한 조안호(24, 광산구 신창동) 씨는 “이 대회에 참석하면서 남북통일과 평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생각지 못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너무 감격스럽다” 면서 “하루 속히 대한민국에도 평화의 봄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노란조끼를 입은 7천명의 자원봉사자들도 이른 아침부터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마라톤 대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 뿐 아니라 광주역 주변 구도심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2천명의 자원봉사자들은 마라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변 지역 4곳(북구 신안동, 임동, 중흥동, 대인동)을 다니며 상가, 골목길, 원룸촌, 주택가 등 구석구석에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수거했다.

총 20km의 긴 거리였지만 이들은 힘든 기색보다는 연신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봉사를 통해 참사랑을 배우게 된다며 즐거워했다.

한편, 이날 신천지자원봉사단 순천지부도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순천시청 앞에서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제1회 평화통일 걷기대회’ 를 개최했다.

▲ 신천지자원봉사단 광주·전남지부, 지역 사회와 ‘나눔과 봉사’로 상생

신천지자원봉사단 광주·전남지부는 지역 내 소외 계층 및 낙후된 곳을 찾아 도움의 손길을 펼치며 지역 발전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기획봉사 ▲찾아가는 건강닥터(주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무료의료서비스) ▲담벼락이야기(도심 속 오래되고 낡아 안전상, 미관상 좋지 않은 담벼락을 벽화로 새단장) ▲나라사랑 평화나눔(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고 후대에 평화를 물려주기 위한 평화 사업은 주변의 입소문을 타며 많은 호응과 참여를 얻고 있다.

또한 ▲자연아 푸르재(도심 거리정화 및 녹색지구만들기 프로젝트) ▲백세만세(하루를 살더라도 멋진 인생, 노인 계층에 희망을 불어넣는 프로젝트) ▲핑크보자기(어둡고 소외된 이웃들의 몸과 마음 건강 프로젝트) 등의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신천지자원봉사단 광주·전남지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9천155명의 봉사자가 1만4천여 명의 사회취약 계층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들의 봉사활동 기간을 일수로 환산하면 1천90일이며 일일노동근로금액으로 환산하면 9억1천6백여만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 각 기관과 단체로부터 지금까지 80여건의 감사패 및 표창장을 수상한 바 있다.

